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3] 다음은 두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이 마이크를 잡고) 안녕하세요? 모둠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이번 ㉠ 수행평가에서 ‘온누리’ 모듬을 대표해서 발표를 맡은 ○○○입니다. (학생 2가 마이크를 잡고) 저는 △△△입니다. 이번 학급 신문을 보니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학습 분야 1위가 과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듬은 ‘신비한 미생물의 세계’를 주제로 선정하여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이 마이크를 잡고) 제가 먼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혹시 미생물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청중의 답을 듣고)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미생물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입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인 미생물은 10~15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미생물이 이렇게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생물은 번식 속도가 매우 빨라 그 수가 많고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손을 든 청중의 질문을 듣고) 미생물의 수가 궁금하시군요. 전문가들은 생물체 전체 무게의 60%가 미생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한 마리의 체중이 약 $1 \times 10^{-12}g$ 정도로 개미 체중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생물의 전체 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대장 내에만 100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생물에는 모양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둥근 형태를 구균, 나선 형태를 나선균이라고 합니다. 또한 긴 막대 형태를 간균, 나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모양을 나사균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의 모양은 지금 우리가 본 것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한편 미생물은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지구 공기압보다 몇십 또는 몇백 배 높은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은 다양한 색소를 만들어 내는데, 이 색소는 자외선으로부터 인간의 피부를 보호하거나 피부의 산화를 막아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생물이 생성하는 많은 물질은 그 기능이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학생 2가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면 미생물이 건축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볼까요? 다보탑, 석가탑처럼 돌로 만들어진 문화재들은 시간이 지나면 부식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미생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میک소코쿠스라는 미생물입니다. 돌에 이 미생물을 처리하면 미생물이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화학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은 돌의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میک소코쿠스가 고형화되어 둥근 덩이를 만드는데,

이 덩이를 통해 공기가 외부에서 내부로 통할 수 있어 돌의

부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생이나 미관상으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니 참 놀랍죠?

여러분, 어제 점심 급식에 나온 생선을 기억하시나요? (청중의 답을 듣고) 맞아요. 자반고등어가 나왔죠.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 만든 자반고등어는 감칠맛이 나는데, 그 맛의 비결도 바로 미생물입니다. 잘 숙성된 자반고등어 1g에는 코리네박테리움이라는 미생물이 무려 수천 마리 이상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글루탐산을 만듭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글루탐산이 무엇인지 아시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 대부분 모르시는군요. 글루탐산은 신경 세포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며 다른 아미노산의 합성과 분해에도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이런 글루탐산에 나트륨을 결합하면 글루탐산 나트륨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MSG로 불리는 조미료입니다. 자반고등어가 맛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반고등어를 만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면 코리네박테리움 대신에 호염성 미생물이 많아져 비린 맛이 나고, 소금을 너무 적게 뿌리면 산을 만드는 미생물이 자라서 상한 맛이 납니다. (손을 든 청중의 질문을 듣고) 미생물 때문에 자반고등어가 상하지는 않는지 궁금하시군요. 코리네박테리움은 글루탐산뿐만 아니라 병원균을 퇴치하는 항생제 같은 물질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자반고등어는 숙성되면서 부패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반고등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손에 상처를 입더라도 잘 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미생물은 의류, 미용, 의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입는 청바지는 인디고라는 색소로 염색하여 만드는데, 이 색소도 미생물을 활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미생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면 어떨까요? 이만 저희 모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서 ‘학생 1’과 ‘학생 2’가 공통으로 사용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청중에게 친숙한 사물에 빗대어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청중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 ④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청중의 배경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⑤ 경험을 환기하는 질문을 제시한 후 청중의 답변과 연관 지어 화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2. 다음은 ㉠의 평가 기준과 이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세운 발표 계획이다.

㉠~㉣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기준	발표 계획
청중의 관심을 반영하여 발표 주제를 선정했는가?	학급 친구들이 선호하는 학습 분야를 조사한 결과를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해야겠군. ㉠
발표 주제에 맞는 정보와 지식을 다루었는가?	신비한 미생물의 세계라는 주제를 고려하여 미생물의 생명력, 모양, 기능 등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어야겠군. ㉡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했는가?	미생물을 종류별로 나눈 후, 각각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해야겠군. ㉢
적절한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는가?	미생물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 자료를 활용해야겠군. ㉣
청중의 배경지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표현했는가?	전문 용어에 대한 청중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겠군.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다른 모둠의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모둠원 1: 미생물이 건축에도 활용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또한 의류학을 전공하고 싶은 나에게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서 좋았어. 미생물이 의류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모둠원 2: 나는 김치나 요구르트에 있는 미생물인 유산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코리네박테리움은 새롭게 접한 내용이야. 지역에 따라 굴비 맛이 달라 그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지역마다 염장을 할 때의 소금양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모둠원 3: 얼마 전 과학 잡지를 보니 슈도모나스라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인공 눈을 만든다고 하더라. 그 잡지를 보고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이 궁금했는데, 오늘 발표가 많은 도움을 주었어. 나는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데, 에너지 분야에서 미생물이 활용된 사례에 대해 조사해 봐야겠어.

모둠원 4: 나는 TV에서 자반고등어에 소금을 전문적으로 뿌리는 사람을 명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의아해한 적이 있어. 그런데 발표를 들으니 그 이유가 고등어에 적절한 양의 소금을 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 내 궁금증을 해소해 준 발표였어.

- ① 모둠원 1과 모둠원 2는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에 주목하고 있다.
- ② 모둠원 1과 모둠원 3은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발표자가 제안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③ 모둠원 2와 모둠원 3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발표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모둠원 2와 모둠원 4는 발표에서 언급된 정보를 활용하여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 ⑤ 모둠원 3과 모둠원 4는 매체를 통해 접한 경험과 연관 지어 발표 내용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다.

[4~7] (가)는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은 기사문이고, (나)는 (가)의 보도 이후 이루어진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우리 학교의 새로운 도전

○월 ○일, 우리 학교는 민주적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획일화된 교실을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학교 공간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업이다. 교육청의 공문에 따르면 이번에 총 6개의 학교가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고, 각 학교는 2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난 학기에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비율이 91%일 정도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학생회에서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공간 개선 요구 사항으로 학생들은 휴식이 가능한 자연 친화적 휴게 공간 조성, 운동과 놀이가 가능한 공간 설치 등을 가장 많이 꼽았고, 선생님들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 공간 조성, 학생들의 휴식 및 활동 공간 확보 등을 꼽았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완료되면 학생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공문에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방침으로 학생 중심 수업을 실현하는 공간, 학생들의 생활을 반영한 공간, 친환경적인 공간, 지역 사회와 연계한 공간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우리 학교는 이를 반영하여 내년까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감 선생님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내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의,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나)

사회자: 지금부터 ‘학교 공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의에 앞서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간 주권을 실천하고 민주적 학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간 주권이란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들이 기존의 공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공간을 평등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교 주체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학교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적 목적도 고려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학교생활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교감: 네, 맞습니다.

사회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학생 대표의 의견부터 들겠습니다.

학생 대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휴식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 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학생들은 휴식과 놀이, 운동 등이 가능한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카페,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 피곤한 학생들

이 눈을 붙일 수 있는 수면실 등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학교 건물의 로비에 자연 친화적 실내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학생들의 휴식과 놀이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이군요. 다음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 대표: 얼마 전 이 사업을 완료한 △△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작은 도서관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도서관이 별관에 있어 학생들의 접근성과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상주하는 본관의 층마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마다 특색을 달리하고, 도서관 내에 학생들이 앉거나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둠 학습이나 학생 중심 수업이 용이하도록 교실 환경을 바꾸고, 복도의 경우에는 벽 쪽에 탁자와 의자, 학습 게시판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대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모 대표: 대부분의 교육학자는 아이들의 취미 및 여가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최고의 진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아이들끼리 모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시설을 새롭게 만들고 이와 함께 용도와 크기, 구조와 디자인이 다양한 학생 활동 교실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교육이나 문화생활을 위한 전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⑥ 주민 전용 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스럽겠지만,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확대하고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교육 과정 운영을 활성화하려면 꼭 필요한 공간이 아닐까요?

사회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지금 나온 의견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㉔ 이 의견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사 대표: 우리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학습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 생활과의 관련성, 수업 연계성을 기준으로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학생 대표: 동의합니다. 학생 생활과의 관련성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것인지의 여부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학부모 대표: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공헌도를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요?

교사 대표: 의미는 있지만 지역 사회 공헌도는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 공간 설치의 기준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 대표: 그러네요. ④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공간을 만들려면 비용의 적절성도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 대표: 맞습니다. 그 기준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 대표: 동의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모든 분이 동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제시한 의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교사 대표: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수면실의 경우에는 사생활에 예민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학교생활이나 수업과의 관련성도 적습니다. 또한 체력 단련실은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보입니다. 오히려 체육관 내에 체력 단련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학생 대표: 수면실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또한 체육관이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 대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용 목적이 동일한 카페와 실내 공원을 모두 설치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교사 대표: 학생 카페나 실내 공원은 다른 공간에 비해 학생들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㉕ 휴식 공간을 많이 조성한다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학생들 간 대화와 소통도 활성화될 수 있으니 모두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요?

학부모 대표: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들 공간은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하죠. 또한 저는 선생님께서 제시한 의견 중 작은 도서관은 교육적 효과가 클 것 같아 찬성합니다. 그러나 실내 공원을 휴식과 학습이 모두 가능한 공간으로 꾸민다면 굳이 복도에 탁자나 의자를 비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복도에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 이용도도 낮을 것 같아요.

학생 대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게다가 층마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다면 굳이 복도 공간을 별도로 꾸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비용을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환경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교사 대표: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교실 환경을 꾸밀 때 교실 벽면에 학습용 보드 칠판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학부모 대표: 학습용 보드 칠판은 수업 활용도가 높고 비용이 적게 드니 꼭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 대표: 맞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시설은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이용도가 낮아 보이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 활동은 지금 있는 음악실이나 강당, 시청각실을 이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동아리나 소집단 활동이 많은 편이니 수업 연계성 측면에서 학생 활동 교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대표: 동의합니다. 활동 교실은 교과 수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적극 찬성합니다.

학부모 대표: 저도 동의합니다.

4. 다음은 (가)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에 대해 학생이 그 활용 방안을 계획한 것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수집한 자료	자료의 활용 방안
• 교육청의 공문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선정 결과와 방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해야겠군. ①
• 학교 구성원 대상 투표 결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도를 부각하는 데 활용해야겠군. ②
• 학생회 주관 설문 조사 자료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소개하는 데 활용해야겠군. ③
•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 자료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기대 효과를 강조하는 데 활용해야겠군. ④
• 교감 선생님과 인터뷰 자료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를 안내하는 데 활용해야겠군. ⑤

5. <보기>는 ㉠에 대한 교사의 조언이다. <보기>를 반영하여 ㉠을 수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표제가 기사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우선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사건을 명시하여 표제를 쓰면 좋겠어. 또한 부제를 추가하되 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의 변화 방향이 부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

- ① 교육청,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시행
 - 민주적 학교 공간 확대를 위한 교육 정책의 일환
- ② 교육청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신청하기로
 -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간 만들기로
- ③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추진을 위한 토의 개최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공간 혁신안 마련하기로
- ④ 우리 학교, ‘학교 공간 혁신 사업’ 대상 학교 6곳에 포함
 -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가 되어 이룬 뜻깊은 성과
- ⑤ 우리 학교, ‘학교 공간 혁신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돼
 - 창의성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즐거운 생활 공간 조성될 듯

6. (나)의 담화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토의 참여자의 발화 의도를 추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발화이다.
- ② ㉡: 토의 참여자가 제시할 수 있는 이견에 대한 해명을 통해 자기 의견의 타당성을 밝히는 발화이다.
- ③ ㉢: 토의 참여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 토의 참여자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 ④ ㉣: 토의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추가하는 발화이다.
- ⑤ ㉤: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며 토의 참여자의 동의를 유도하려는 발화이다.

7. 다음은 토의의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에 따라 위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의의 과정		과정에 대한 설명
㉠	문제 인식	토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토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	대안 도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	판단 기준 선정	문제와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선정한다.
㉣	대안 분석 및 평가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된 대안들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	최적의 대안 선택	토의 참여자들의 합의를 거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 ① ㉠: 교감은 용어의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의 성격을 언급한 후 이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② ㉡: 학생 대표는 학교 신문 기사의 내용을, 교사 대표는 다른 학교의 사례를, 학부모 대표는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 학생 대표는 교사 대표가 제시한 기준에 동의하면서 일부 기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교사 대표는 학부모 대표가 제시한 기준 중 일부에만 동의하고 있다.
- ④ ㉣: 교사 대표는 수면실 설치에 대해, 학부모 대표는 복도 내 탁자와 의자 설치에 대해, 학생 대표는 문화·예술 시설 설치에 대해 수업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⑤ ㉤: 교사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는 모두 카페와 실내 공원 조성, 작은 도서관 운영과 교실 환경 개선, 학생 활동 교실 설치에 합의하고 있다.

[8~10] (가)와 같이 글쓰기 과제를 분석한 후, (나)를 포함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의 글을 작성했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글쓰기 과제 분석

- 주제 및 목적: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제를 바탕으로 설득하기
- 예상 독자: 청소년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I. 조사의 목적 …(후략)…

II. 조사의 내용과 방법 …(후략)…

III. 조사의 결과

1. 성인 조사 결과

㉠ 응답자 중 64.2%가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10.1%는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혐오 표현 내용은 주로 지역, 성별, 세대, 국적,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것이었다. …(후략)…

2. 청소년 조사 결과

…(전략)… 혐오 표현의 내용은 성인과 다르지 않았다. 구체적인 응답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중복 응답). <표 1>을 바탕으로 <표 2>와 <표 3>은 혐오 표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표 4>는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 <표 1> 혐오 표현 경험 (단위: %)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	68.3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경험	23.9
㉢ <표 2>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당한 장소 (단위: %)	
온라인	82.9
학교	57.0
학원	22.1
㉣ <표 3>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식 (단위: %)	
반대 의사를 표현함.	41.9
그냥 무시함.	79.9
자리를 피함.	73.4
㉤ <표 4> 혐오 표현을 사용한 이유 (단위: %)	
혐오 표현이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기 때문에	60.9
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57.5
재미나 농담을 위해서	53.9

…(후략)…

(다) 학생의 초고

최근 대중 매체와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혐오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특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가리킨다. ㉠ 우리나라 성인의 대다수가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을 만큼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게다가 ㉡ 청소년들의 경우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경험의 비율이 성인들에 비해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혐오 표현에 노출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먼저 혐오 표현은 청소년들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평등과 인권의 의미를 왜곡하게 만들어 민주 시민 교육을 방해한다. 실제로 ㉢ 청소년의 60.9%는 차별과 편견이 담겨 있는 혐오 표현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혐오 표현을 접할 경우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무력감이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 피해가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는 혐오 표현 피해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유 활동을 확대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미디어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 혐오 표현을 사용한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은 문제의식없이 혐오 표현의 내용에 동의하고 있으며,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도 적극적 대응보다는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학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혐오 표현 대응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 등을 운영해야 한다.

8. (가)를 바탕으로 (다)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다)에 반영된 것은?

- ① 주제를 고려하여 혐오 표현의 개념을 제시하고, 혐오 표현의 유형별 특징을 언급해야겠다.
- ② 주제를 고려하여 최근 대중 매체와 온라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혐오 표현의 사례를 소개해야겠다.
- ③ 목적을 고려하여 청소년 혐오 표현 문제의 해결 방안들이 지닌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야겠다.
- ④ 목적을 고려하여 청소년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해야겠다.
- ⑤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혐오 표현에 노출되는 현상이 청소년의 인성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해야겠다.

9. 다음은 학생이 (다)를 읽으면서 자기 점검을 수행한 내용이다. 점검의 결과가 잘못된 것은?

점검 항목	점검의 결과
...	...
참고한 자료의 내용이나 정보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사용했는가?	• ㉠: (나)의 ㉠을 확인한 결과 적절하지 않음. ① • ㉡: (나)의 ㉠과 ㉡을 비교한 결과 적절함. ② • ㉢: (나)의 ㉢을 확인한 결과 적절하지 않음. ③ • ㉣: (나)의 ㉣을 확인한 결과 적절함. ④ • ㉤: (나)의 ㉤과 ㉥을 확인한 결과 적절함. ⑤
...	...

10. <보기 1>은 [A]에 대한 검토 의견이고, <보기 2>는 <보기 1>을 참고하여 글쓰기가 [A]를 고쳐 쓴 과정이다.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1>—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난 점이 좋았어. 하지만 독자 중에는 제도적 노력 없이는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적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의 역할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다만 작문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적 노력의 중요성과 의의가 더 부각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어. 또한 글의 결론 부분인 만큼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 표현 방법인 설의법, 비유법 중 하나를 사용하면 좋겠어.”

—<보 기2>—

[1차 수정]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혐오 표현 대응 교육만으로는 결코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와 언론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언론에서도 미디어를 통해 혐오 표현이 재생산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혐오 표현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사회가 될 것이다.

[2차 수정]

물론 정부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언론에서 혐오 표현을 자정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고 인권을 실천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 ① ① [1차 수정]에서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아 [2차 수정]으로 고쳤다.
- ② [1차 수정]에서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2차 수정]으로 고쳤다.
- ③ [1차 수정]에서 교육적 노력의 중요성과 의의가 부각되지 않아 [2차 수정]으로 고쳤다.
- ④ [1차 수정]에서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2차 수정]으로 고쳤다.
- ⑤ [1차 수정]에서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노력을 함께 제시하지 않아 [2차 수정]으로 고쳤다.

[11~12]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음운 변동의 유형을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동 전후의 음운 개수를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를 ‘교체’로,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경우를 ‘탈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없던 음운이 덧붙는 경우를 ‘첨가’로,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를 ‘축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 내에서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일’은 ‘막일 → 막닐 → [망닐]’로 발음되어서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고, 그 결과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어납니다.

학생: 선생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교체로 보아야 할지, 축약으로 보아야 할지 헷갈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동사 ‘보다’의 어간 ‘보-’에 어미 ‘-아’가 결합하여 [봐]로 발음되는 경우를 어떤 책에서는 축약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교체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전자는 ‘ㄱ’과 ‘ㅌ’가 ‘ㅍ’로 줄어드는 현상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중 모음 ‘ㅏ’는 반모음 ‘w’와 단모음 ‘ㅏ’로 이루어져 있으니 ‘ㄱ+ㅌ → w+ㅌ’에서 ‘ㄱ’이 ‘w’로 바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학생: 아, 그러니까 ‘봐’를 교체 현상으로 보는 설명은 축약 현상으로 보는 설명과 달리 ㉠에 주목하는 것이군요.

11. [A]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훤[훤른]’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다.
- ② ‘꽃길[꼇길]’은 교체 및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다.
- ③ ‘값하다[가파다]’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다.
- ④ ‘색연필[쌔년필]’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다.
- ⑤ ‘깨끗하다[깨끄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다.

12.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운 변동 전후의 음절 수의 변화
- ② 반모음이 어떤 단모음과 결합하는지
- ③ 반모음이 음운의 자격을 지닌다는 점
- ④ 연속된 모음을 얼마나 쉽게 발음할 수 있는지
- ⑤ 하나의 형태소 내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을 ‘◇+㉠+◇+☆’처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보 기>

다음은 용언을 구성하는 형태소들을 단어 형성에 관련되는 어근과 접사, 활용에 관련되는 어미로 분류하고 각각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목에 가게를 열었다.
→ ㉠+㉡+☆
- 우리는 평야가 드넓게 펼쳐진 곳을 지났다.
→ ◇+㉢+☆
- 형은 용돈을 납기어 저금을 했다.
→ ㉣+◇+☆

- ① 아이들은 한참 뛰는 뒤에 들어왔다.
- ② 창문에 창호지를 덧붙여 바람을 막았다.
- ③ 힘든 일은 서로서로 도와주며 지내야 한다.
- ④ 아침에 약속 시간을 늦추었는데 깜빡 잊었다.
- ⑤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우리말의 문장은 그 짜임에 따라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주어+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부분을 ‘절’이라고 한다. 겹문장은 ㉧ 두 절이 이어져 있는 경우와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 안고 있는 경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후자를 안은문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 명사형 어미가 붙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쓰이는 절을 안은 문장, ㉢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안은 문장,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안은 문장, ㉣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안은 문장,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을 절의 형식으로 안은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 우리 학교 운동장에도 드디어 잔디가 깔렸다.
- ② ㉧: 오전에는 눈이 펄펄 왔는데 오후에는 비가 쏟아진다.
- ③ ㉡: 동생은 내가 어제 남긴 빵을 오늘 아침에 모두 먹었다.
- ④ ㉢: 친구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시험에 드디어 합격을 했다.
- ⑤ ㉣: 우리 동네에서 찬수 아저씨가 운전 실력이 가장 뛰어나다.

15. <보기>의 ㉦~㉨에서 밑줄 친 말을 같은 품사끼리 짝지은 것은?

<보 기>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는 현대 국어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데, 다음의 ‘므슴’과 ‘새’는 이러한 예이다.

- ㉦ 나ㅁ닐 다시 므슴 퍼리오
(남은 일 다시 어찌 퍼졌는가)
- ㉧ 그되 惡友(악우) 불러 므슴 흘따
(그대 나쁜 친구를 불러 무엇 하겠는가)
- ㉡ 므슴 물로 썩 시스시는가
(무슨 물로 때를 씻으시는가)
- ㉢ 이 나래 새를 맛보고
(이날에 새것을 맛보고)
- ㉣ 새 기슬 一定(일정)ㅎ헛도다
(새 보금자리를 정하였도다)
- ㉤ 새 出家(출가)ㅎ 사르미니
(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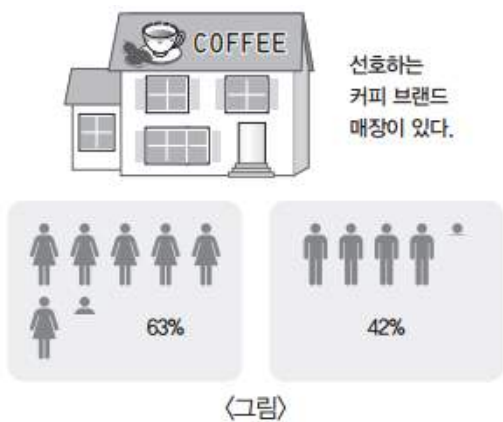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포그래픽(Infographic)은 복잡한 정보의 배열이나 관계를 표나 그림,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맵 등의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낸 정보 전달 방식을 말한다. 인포그래픽은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 심미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사용자가 정보를 ㉠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인포그래픽은 신문이나 잡지 등 기존 미디어에서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표현 방식으로,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시각화한 결과물로 정보를 전달해 왔다. 1931년 런던 지하철 제도공이었던 헨리 백은 구불구불한 지하철 노선도를 실제 지리 정보를 무시하고 수직, 수평, 45도 각도로만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이는 인포그래픽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노선별로 각각 다른 색을 적용하고, 활자를 체계화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환승역을 강조하여 승객이 더 빠르게 지하철을 갈아타고 도착역을 찾아갈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지하철 노선도의 ㉡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형적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명확성과 단순성을 갖추어야 한다. 명확성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수용자가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각 그래픽 요소가 아무리 뛰어나게 디자인되었다 하더라도 수용자의 심상에서 이미지와 실제 대상과의 매핑(mapping)*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인포그래픽의 속성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정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도 한다. 단순성은 복잡한 형태에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조형적으로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세밀한 필체나 정밀한 묘사보다는 대상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제작자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구성하려는 내용을 의도에 맞게 단순화하지 못하면 정보 전달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로, 단위 요소에 의한 표현의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위 요소를 설정한 후 그룹화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조형적 구조를 사용하여 동질성과 차별성, 정량적 관계나 비율 관계 등이 쉽게 인식되므로 정보의 상호 관계성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조형 요소로 복잡한 데이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적인 표현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은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 매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남녀의 응답을 인포그래픽으로 ㉢ 구현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형태, 각 성별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인 사람 수 등으로 단위 요소를 설정한 후 그룹화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포그래픽은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유희성을 담아내야 한다. 명확성과 단순성, 표현의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인지 과정에서 제시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는 있지만, 조형적 유사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어려워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에 유희성을 가미한 인포테인먼트를 통해 정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이미지를 단순화한 일반적인 인포그래픽보다 수용자들의 시선을 모으는 데 더 유용하며 담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도 현저히 많다.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에서는 형태, 색, 크기 등의 조형적 변화를 통한 재미를 가미하여 수용자들이 영상 정보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정보 수용에 대한 부담을 ㉣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복잡한 정보를 차별화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정보의 개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성과 단순성, 표현의 경제성, 유희성 등을 ㉤ 구비한 고효율적인 인포그래픽의 구현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매핑: 지각과 사고에 의해 상관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관시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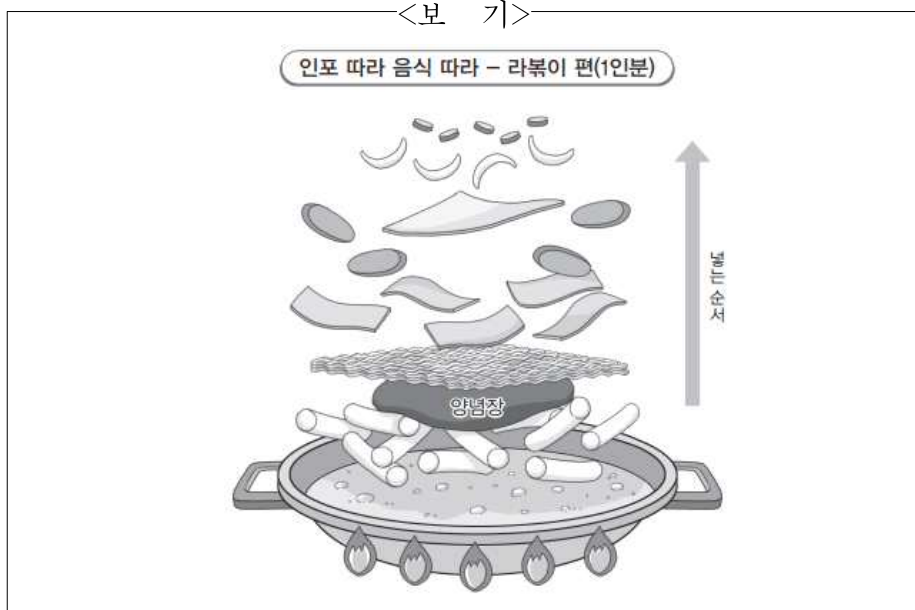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포그래픽의 개념을 정의의 방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인포그래픽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인포그래픽이 갖추어야 할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인포그래픽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⑤ 인포그래픽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포그래픽은 디지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이다.
- ② 인포그래픽은 시각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이다.
- ③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은 일반적인 인포그래픽보다 담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많다.
- ④ 정보의 시각화 과정에서 조형적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 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제작자의 해석이 분명해야 인포그래픽을 통한 정보 전달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인포그래픽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념장’, ‘넣는 순서’ 등의 문자를 활용하여 정보 전달의 명확성을 높이고 있군.
- ② 각 재료의 그림 이미지 개수에 차이를 두어 재료들의 정량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③ 재료들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보는 사람이 그림 이미지와 실제 재료를 쉽게 매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④ 각 재료의 세부적인 특징을 정밀하게 묘사하여 그룹화함으로써 재료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군.
- ⑤ 재료를 넣는 순서를 영상 형식으로 제작하여 순차적으로 보여주면 인포테인먼트를 통해 정보에 대한 수용자들의 시선을 더 모을 수 있겠군.

1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 ② ㉡: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
- ③ ㉢: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 ④ ㉣: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
- ⑤ ㉤: 미리 마련하여 갖추.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약물 독성 시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1950년대 독일의 제약 회사 그뤼넨탈에서 개발한 탈리도마이드($C_{13}H_{10}N_2O_4$)는 당시 많은 동물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수면 진정제로 판매되었다. 그 후 임산부의 입덧을 완화한다는 추가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많은 임산부가 약을 복용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1만 명에 가까운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면서 판매가 금지되었다. 탈리도마이드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탈리도마이드가 거울상 이성질체의 속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과학자들은 의약품과 같은 화합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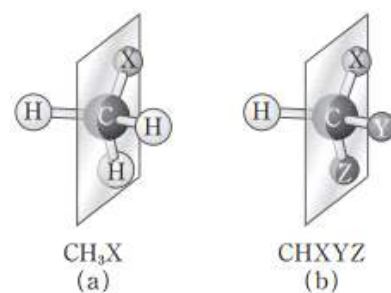


<그림 1>

거울상 이성질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울상과 이성질체에 대해 알아야 한다. 거울상이란 <그림 1>의 거울에 비친 물체의 상(像)과 같이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왼손을 거울에 비추면 거울에는 오른손 모양의 상이 비친다. 물체나 분자는 자신의 거울상과 포개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위에서 예로 든 손은 자신의 거울상과 포개지지 않지만, 완전한 둥근 공이나 정육면체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거울상과 포개진다. 이때 전자를 카이랄성(손대칭성)이라 부르고, 후자를 비카이랄성이라 부른다.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지만 분자 내에 있는 구성 원자들의 결합 방식이나 공간 배열이 동일하지 않은 화합물을 말한다. 분자식이 같은 화합물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그 성질은 달라질 수 있다. 이성질체는 크게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로 나뉘는데, 그중 구조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결합 방식이 다른 화합물을 말한다. 반면 입체 이성질체는 분자식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결합 방식은 동일하지만, 3차원에서 공간 배열이 다른 이성질체를 말한다. 앞에서 설명한 카이랄성에 해당하는 화합물은 거울상 이성질체로, 입체 이성질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체나 분자가 카이랄성인지 비카이랄성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물체나 분자가 대칭면을 갖는지의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칭면이란 물체를 반으로 나누어 한쪽 반이 다른 반쪽과 정확하게 대칭이 되도록 가로지르는 가상의 평면을 말한다. 대칭면이 존재하면 그 물체는 자신의 거울상과 완전히 포개지므로 비카이랄성이고, 반대로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으면 카이랄성이다. 예를 들어 정육면체는 가로면, 세로면 등의 대칭면을 갖고 있으므로 비카이랄성이다. 어떤 화합물의 구성 분자가 카이랄성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탄소를 중심으로 정사면체형 구조를 갖고 있는 CH_3X 와 $CHXYZ$ 형태의 분자를 가정해 보자.



<그림 2>

CH_3X 는 <그림 2>의 (a)와 같이 대칭면을 만들면 대칭면 밖의 두 H가 서로 포개질 수 있으므로 비카이랄성이지만, 그림 (b)의 $CHXYZ$ 는 탄소를 중심으로 네 개의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해 있어 서로 포개질 수 있는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카이랄성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들의 중심에 있는 탄소를 카이랄성 중심이라 부른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의약품에는 카이랄성 분자들이 섞여 있고, 대개의 경우 쌍을 이루는 거울상 이성질체 중 한쪽만이 원하는 약 효과를 나타낸다. 즉 다른 거울상 이성질체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약한 효과를 낼 뿐이다. 어떤 의약품의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거울상 이성질체가 심각한 부작용이나 독성을 내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탈리도마이드’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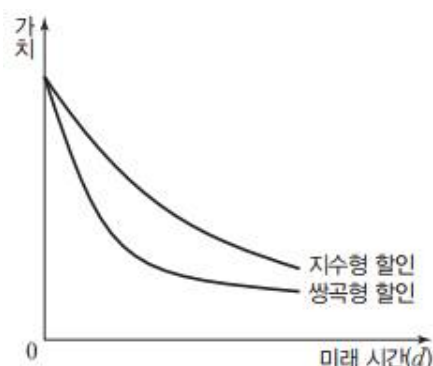
질까?

현재 100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돈이 1년 후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연이율)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갖고 있는 화폐의 1년 후의 가치를 식으로 나타내면 $(1 + \text{이자율}) \times \text{화폐의 명목 가치}$ 가 된다. 여기서 명목 가치란 화폐의 액면에 적힌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5%라면 현재 100원이 갖는 1년 후 가치는 $(1 + 0.05) \times 100\text{원} = 105\text{원}$ 이 된다. 이를 역으로 적용하면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frac{100}{(1 + 0.05)}$ 인 95원 정도가 된다. 이 경우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인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이자율은 곧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현재로부터 떨어져 있는 미래 시점의 편익이나 비용의 가치를 할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text{현재 가치} = \frac{\text{미래의 명목 가치}}{(1 + \text{할인율})}$ 가 되

는데, 이때 $\frac{1}{(1 + \text{할인율})}$ 을 할인 인자라고 한다. 할인율이 작을수록 할인 인자는 커지므로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커진다.

어빙 피셔와 같은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할인율이 복잡한 심리적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할인율 결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태두인 폴 새뮤얼슨은 할인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text{현재 가치} = \frac{\text{미래의 명목 가치}}{(1 + \text{할인율})^d}$ 라는 식을 제시했다. 여기서 d는 미래 시간으로, 예컨대 'd=1'일 경우 이는 1년 후 재화가 갖는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이는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으로, 현재 가치가 지수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형 할인'이라고 한다.

지수형 할인에 대해 최초로 의문을 품은 사람은 스트로츠로, 그는 할인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지수 함수로 나타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스트로츠의 주장에 대해 행동주의 경제학자인 세일러는 ㉠ 실험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와 같은 할인의 방법을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text{현재 가치} = \frac{\text{미래의 명목 가치}}{1 + d}$ 가 된다. 이는 쌍곡선 방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쌍곡형 할인'이라고 한다. 예컨대 위의 식의 '미래의 명목 가치'에 100원을 대입하면,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50원, 2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약 33원, 3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25원과 같이, 시간이 미래로 갈수록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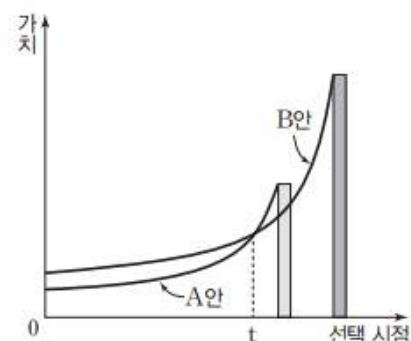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1〉은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에서 d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x축은 미래 시간(d)을, y축은 할인된 현재 가치를 나타낸다. 그런데 지수형 할인은 d의 값이 1, 2, 3, ..., n으로 증가할 때 현재 가치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반면, 쌍곡형 할인은 초기에는 급격하게 가치가 감소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이는 할인율이 일정한 지수형 할인과 달리 쌍곡형 할인에서는 가까운 미래에는 할인율이 크고 먼 미래로 갈수록 점점 할인율이 작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에서의 할인율 차이로 인해 다른 시점 간의 선택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만일 가까운 미래에 작은 이익을 주는 A안과 먼 미래에 큰 이익을 주는 B안 중에서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A안과 B안에 적용된 할인율이 같고 현재 B안의 할인된 가치가 A안보다 크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B안의 현재 가치가 A안보다 크기 때문에 선택 시점과 상관없이 B안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쌍곡형 할인에서는 선택 시점과 이익을 얻는 시점과의 시간적 거리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림 2〉

〈그림 2〉는 쌍곡형 할인에서 다른 시점 간의 할인을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x축은 선택 시점, y축은 각 시점에서 할인된 현재 가치, 그리고 막대는 A, B안이 현실화되어 이익을 얻는 시점과 그때의 가치를 의미한다.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경과하여 A, B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초기에는 가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막대에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폭이 커지는데, 이는 〈그림 1〉의 초기의 높은 할인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그림 1〉에서의 초기의 높은 할인율로 인해 이익이 조금만 미래로 연기되어도 현재 가치가 크게 하락하므로, 반대로 이익을 얻는 시점에 임박할수록 〈그림 2〉와 같이 할인된 현재 가치가 급격하게 회복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처음에는 A안의 현재 가치가 B안보다 작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t시점을 지나 A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A안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B안의 현재 가치보다 커지면서 선호가 역전되는 현상이 ㉡ 나타나는데, 이를 '시간적 비정합성'이라고 한다. 예컨대 A안을 늦잠의 가치라고 하고 B안을 아침 운동의 가치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졌을 때는 늦잠보다 아침 운동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지만, 막상 아침이 돼서 알람이 울리면 늦잠의 가치가 아침 운동의 가치보다 크게 느껴져서 운동을 포기하고 늦잠을 자는 것이 바로 시간적 비정합성에 해당한다. 이는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호하는 현상에 의한 것이다.

시간적 비정합성을 세일러는 ㉢ '사람들은 내일의 사과 둘보다 오늘의 사과 하나를 선택하지만, 1년 후의 사과 하나보다는 1년 1일 후의 사과 둘을 선택한다.'라는 인상적인 표현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쌍곡형 할인은 시간이 경과하여 어떠한 선택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익에 대한 평가는 초기에 완만하게 상승하다 나중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손실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경과하여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더라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제학적 설명과 다른 측면에서 심리학자인 트롭과 리버먼은 인간의 심리에 바탕을 둔 '시간 해석 이론'을 통해 시간적 비정합

성을 설명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동일한 대상이라도 시간적으로 대상이 멀리 있는 경우와 가까이 있는 경우에 대상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의 본질적이면서도 추상적인 면을 중심으로 고차원적 수준에서 해석하는 반면,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세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면에 주목하여 저차원적 수준에서 해석하게 된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스페인의 주요 관광지나 역사나 문화 등에 관심을 갖지만, 정작 일주일 후로 여행 날짜가 닥쳐오면 여행에 필요한 물건이나 로밍 방법, 환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

시간 해석 이론을 적용하여 쌍곡형 할인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비정합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이익에 대한 평가에서 명목 가치의 크기와 같은 이익의 크기는 고차원적 성질에 해당하고, d의 값과 같은 시간의 연기는 저차원적 성질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의 이익을 평가할 경우 이익의 크기보다 시간의 연기가 중시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미래로 연기되어도 할인이 크게 된다. 반대로 먼 미래에 관해서는 고차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익의 크기가 시간의 연기보다 중시된다. 이처럼 현재로부터 시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에 따라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쌍곡형 할인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비정합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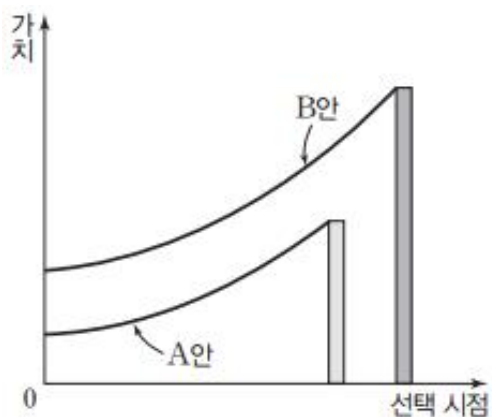
25.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 ②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가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 ③ 지수형 할인에서 $d=1$ 일 때, 할인 인자가 작을수록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가치는 커진다.
- ④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 모두 d의 값이 커질수록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값이 작아진다.
- ⑤ ‘시간 해석 이론’은 할인율의 변화로 인한 선호의 역전 현상을 시간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26. 밑글의 <그림 2>와 <보기>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은 지수형 할인에서 가까운 미래에 작은 이익을 주는 A안과 먼 미래에 큰 이익을 주는 B안이 현실화되어 돈을 받는 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단, 막대는 A, B안이 현실화되어 이익을 얻는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임.)



- ① <보기>는 시간이 변화하더라도 A안과 B안의 할인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 ② <그림 2>에서 A안은 B안과 달리 대안이 현실화되어 이익을 얻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폭이 점점 커진다.
- ③ <보기>는 <그림 2>와 달리 A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더라도 A안을 선택하는 시간적 비정합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그림 2>는 <보기>와 달리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 현상과 관련이 있다.
- ⑤ <그림 2>와 <보기> 모두 A안과 B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현재 가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7. <보기>는 ㉠과 유사한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정의 상황을 제시했다.

“○○개월 후에 100만 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그런데 만일 지금 당장 돈을 받기를 원한다면 1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돈을 받는다면 최소 얼마의 금액이면 만족하겠는가?”

‘○○개월’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의 순서로 바꾸어 가며 물어본 결과 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지금 당장 받기를 원하는 금액은 a, 그 금액이 변화하는 폭은 b 것을 알 수 있었다.

- | a | b |
|--------|---------|
| ① 커지고 | 늘어난다는 |
| ② 커지고 | 줄어든다는 |
| ③ 작아지고 | 늘어난다는 |
| ④ 작아지고 | 줄어든다는 |
| ⑤ 작아지고 | 변함이 없다는 |

28. 시간 해석 이론을 바탕으로, ㉡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는 먼 미래에 관해서와 달리 시간의 연기보다 이익의 크기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겠군.
- ② 먼 미래에 관해서는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와 달리 이익의 크기보다 시간의 연기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겠군.
- ③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든 먼 미래에 관해서든 항상 시간의 연기보다 이익의 크기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겠군.
- ④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는 이익의 크기보다 시간의 연기를, 먼 미래에 관해서는 시간의 연기보다 이익의 크기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겠군.
- ⑤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는 시간의 연기보다 이익의 크기를, 먼 미래에 관해서는 이익의 크기보다 시간의 연기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겠군.

29. <보기>는 ㉠과 유사한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불안 현상으로 ‘매리지 블루’가 있다. 이는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다가 막상 결혼식 날 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 대한 부담감이 기대감보다 더 커져 우울증을 느끼는 현상이다. 그런데 결혼과 관련한 이러한 심리 현상은 시간 해석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쌍곡형 할인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이론의 차이점이 있다.

(단,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이익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손실로 간주한다.)

- ① A에 따르면, 결혼식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매리지 블루와 같은 심리적 불안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 ② A에 따르면, 결혼식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부담감은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기대감을 역전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 ③ A에 따르면,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기대감을 상쇄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설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 ④ B에 따르면, 결혼식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 대해 부담감이 커지는 것은 결혼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면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⑤ B에 따르면,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며 기대감으로 설레는 것은 결혼을 고차원적 수준에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30.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다음 날 길거리에 사람들의 행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② 그가 평소 가진 생각은 그가 쓴 글에 잘 나타나 있다.
- ③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 ④ 이 곡에는 역사적 슬픔이 애잔한 선율로 나타나 있다.
- 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곧 나타났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20년 넘게 근무하던 신문사에서 실직한 설 부장은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던 동네 포장마차에 들르게 되고, 거기에서 공사판 미장이인 장 씨를 알게 된다. 이후에 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포장마차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 부장 선생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도 문제가 된

다 이겁니다. 조곤조곤 타이르듯 상의조로 나오는 것과, 처음부터 사그리 무시하고 나오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야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양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기꾼으로 보는 눈치였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손으로 벌어먹는 우리와 깊은 학식을 가지고 머리로 벌어먹는 사람과는 천양지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머리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우리 같은 사람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지요.”

“안 그렇더라 이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어쨌는 줄 아세요?”

“어쨌는데요?”

설 부장은 시답잖게 되물었다. 도대체 자기가 지식깨나 있는 사람으로 몰리고, 장 씨는 또 일하는 사람의 대표 격으로 분리되는 판국이 개운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일을 대충 마무리 짓고, 주인과 함께 간단히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정원에서였는데, 그 집주인이 저한테 막걸리를 따라 주길래 그걸 받아 마시고, 그 잔을 그 양반에게 디밀며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끝끝내 마시지 않고 있다가, 내가 한 눈을 파는 사이 잔디밭에 쏟아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물어세요. 제가 입 댄 술잔에 뭐 더러운 균이라도 묻어있을까 봐 그랬겠죠.”

“설마.”

“아닙니다. 이래 봐도 우리가 눈치 하나는 비상합니다. 그 바닥에서 오래 굴다 보면, 남는 건 눈치밖에 없다구요. 그 일은 또 눈감아 준다고 칩시다.”

“무슨 일이 또 있었습니까?”

설 부장은 조금은 관심이 당기는지, 조급하게 그다음 말을 재촉했다.

“내 참 치사해서. 그 일이 있는 지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은 간밤에 눈이 몹시 내려서, 일을 공치고 아침부터 테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연찮게도 그 양반이 테레비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연말을 맞아 어떻게 불우 이웃을 도울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 차례가 돌아오자, 말끝에, 물질적인 후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가진 자에 대한 깊은 동정과 이해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안 가진 자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요컨대 우리 같은 가난뱅이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실망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실망이 컸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끼리끼리 노는 마당이니까,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사정을 알아줄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해 오고는 있었으나…….”

“끼리끼리 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아시면서 그러시네.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네에? 민주주의는 왜 또 나옵니까?”

설 부장은 깜짝 놀랐다. 장 씨의 입에서 설마 민주주의란 말이 튀어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었다는 장 씨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달 것까지는 없지만, 어떤 상황을 그런 ㉠ 육두문자식 직관으로 때려잡는 것이 희한하다면

회한했던 것이다.

“왜 놀라십니까. 무식쟁이가 그런 말 한마디 했기로서니.”

“그게 아니라…….”

“놀라실 만도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눈으로 몸으로 때려잡는 데는 어느 정도 도가 트여 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처럼 조리 있고 깊게 깨우치지는 못해도, 우리들의 그런 눈치가 대강은 들어맞거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입으로는 자유다 평등이다, 하고 떠들어 대지만, 속을 파보면 끼리끼리 어울려 가지고 자기네들 이익 취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을 갈라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꼬치꼬치 묻지 마십시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놀랐습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비웃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설 부장은 장 씨의 이런 끼리끼리의 논리와, 네 편 내 편 따지는 시각을 반드시 그럴듯하게만은 보지 않았다. 그러나 설 부장 또래들이 세련된 입놀림으로 조목조목 따지는 것과는 달리, **몸으로 세상 풍수를 알아내는 장 씨의 논리도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다. 장 씨의 잘 닦인 눈은, 특히 자기 주변의 생활이나 사람들을 가려내고 감별하는 데 있어서 특출한 바가 있었다. 가령 어느 때든가, 장 씨는 ‘왔다집’ 주모의 나이가 대충 몇 살인가를 알아맞히는 내기를 하자고 제의해 왔다. 설 부장이, 당신은 오래전부터 드나들어서 그 여자의 나이를 아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기가 성립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자기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설 부장은 대강 마흔 안팎이라고 짚었다. 그러자 장 씨는 빙긋이 웃었다.

“어림없는 소리 마십시오. 잘해야 서른서넛? 아무리 많이 먹었대도 서른다섯은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그렇게 젊게는 안 보이던데.”

설 부장이 고개를 가웃거리자, 장 씨는 다시 길고 짧은 것은 대박야 하는 거니까, 요다음 포장마차에 들르거든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만났을 때, 장 씨가 먼저 여자에게 수작을 걸었다.

“아주머니,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말수가 적은 여자는 대답을 안 한 채, 고개를 들어 눈으로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여기 설 선생하고 내가, 아주머니 나이를 가지고 내기를 했습니다. 설 선생은 아주머니의 나이를 섭섭하게도 마흔 안팎으로 봤다 이겁니다. 하나 내가 보기에는 아주머니 나이는 아무리 늦잡아도, 서른다섯 이상으로는 안 보인단 말씀야. 서른서넛 되었을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자는 대답 대신 빙긋이 웃었다. 별걸 다 가지고 내기를 했다는 뜻과, 좀 멧쩍어하는 뜻이 반반으로 섞인 웃음이었다.

“아무려면 어때요. 먹을 만큼 먹었겠조.”

여자는, 두 사람이 대답을 재촉하듯 잠자코 쏘아보지만 하자 마지 못해 응수를 해 주었다.

“사람 감질나게 만드네. 우리에게는 오늘 술값이 걸린 중요한 일이란 말요.”

장 씨가 다시 채근했다. 그러자 여자는 이번에는 웃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던지듯 말했다.

“장 씨의 짐작이 맞아요.”

“거 보슈.”

장 씨는 조금은 우쭐한 표정으로, 설 부장을 돌아보았다. 돌아오는

길에서, 설 부장은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여자의 나이를 알아맞히었느냐고 물었다. 장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척 보면 삼천리라고,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의 눈치와 짐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험한 일**을 해 온 사람은 그만큼 걸늬는다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지요. 그 눈치라는 것이, 지식깨나 있는 사람이나 높은 양반들이 노는 동네에 들어서면 헛갈리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노는 동네에서는 대강 들어맞아요. 그런 것도 없다면 어떻게 이 바닥에서 부대끼며 삽니까. 이제부터는 설 부장 선생도 그런 것 좀 배우셔야 합니다.”

- 최일남, 「장 씨의 수염」

3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 씨는 정황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치가 설 부장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 ② 장 씨는 ‘왔다집’ 주모의 나이를 알아맞히는 내기를 하자고 설 부장에게 먼저 제의했다.
- ③ 장 씨는 자신이 배우지 못한 노동자 계층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으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다.
- ④ 설 부장은 장 씨가 자신을 지식인으로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 만족해했다.
- ⑤ 설 부장은 장 씨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장 씨가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재촉했다.

32. ㉠의 의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해력이 부족하여 지식인의 설명을 오해하는 것
- ② 직접적인 피해 경험으로 인해 이념을 부정하는 것
- ③ 객관적인 통찰력이 결여되어 편협한 생각에 갇힌 것
- ④ 자신만의 안목을 바탕으로 세상 이치를 짐작하는 것
- ⑤ 사회적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 현실 인식이 비합리적인 것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 씨의 수염」은 1980년대 도시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그들의 불만 의식을 그린 작품으로, 지식인들이나 가진 자들이 소외된 서민들에 대해 취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만 의식이나 비판적 시선은 소외감을 느끼는 인물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한 지식인이 그들의 삶과 능력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허울 좋은 지식인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① ‘제가 입 댄 술잔에 뭐 더러운 균이라도 묻어 있을까 봐 그랬’을 것이라는 장 씨의 말에서 도시 서민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불만 의식을 엿볼 수 있군.
- ② 집주인이 ‘앞뒤가 다르’다는 장 씨의 말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대답하는 설 부장의 모습에서 서민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한 지식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자유다 평등이다, 하고 떠들어 대지만, 속을 파 보면 끼리끼리 어울려 가지고 자기네들 이익 취’한다는 장 씨의 말에서 지식인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느껴지는군.
- ④ ‘몸으로 세상 풍수를 알아내는 장 씨의 논리도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설 부장의 생각에서 사람에 대한 장 씨의 감별 능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⑤ ‘일찍부터 험한 일을 해 온’ 포장마차 주인이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에서 삶의 애환을 겪어 온 도시 서민들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옛날 낙양(洛陽) 동촌에 선비 있소되 기질이 호탕하여 흘러넘치고 풍채 또한 당당하고 너그러워 인색하지 않으며 문장은 이백 두보를 압두하고 필법은 왕조(王趙)*를 묘시(藐視)하는지라. 한가지로 과공(科工)을 힘쓰니 마침 방춘호시절(方春好時節)을 당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백악산에 올라 장안의 도시를 굽어보니 만학천봉 적적한데 계곡의 시냇물은 잔잔하고 십 리 강산 버들잎은 광풍에 흔들리고 피꼬리는 구십춘광을 회롱하며 원앙새 비취금은 이리저리 왕래하며 각색 초목이 무성한데 푸른 소나무 낙낙하고 푸른 대나무 아름답고 산유자 황양목 측백 층층 들메나무는 사변에 뻗뻗하게 늘어서 있고 이화 도화 두견화며 각색 꽃이 자옥한 곳에 만장폭포 맑은 물이 이 골저 골 합류하여 굽이굽이 출렁 흘러가니 별건곤이 여기로다.

삼 인이 한가지로 경계를 완상하며 흥취 도도하여 금준미주와 옥반가효를 실컷 취하고 삼 인이 다 광란(癡亂)*하여 인사불성(人事不省)하였더니, 이때 지부(地府) 염라대왕이 날마다 차사(差使)를 놓아 사람 일천씩 잡아가더니 시절이 태평하여 돌림감기 앓는 어린이 하나도 없는지라. 사자들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백악산에 올라가매 삼 인이 광란하여 반생반사(半生半死)하였거늘, 세 놈이 의논하되, ‘우리들이 왕명을 받아 매일 사람 일천씩 잡아가더니 오늘은 지부에 들어갈 경과거리*도 없으니 저 세 놈이 죽진 않았으나 경과거리야 못 하랴.’ 하고 쇠채로 두드려 지부로 잡아 들어가니 염라왕 앞에서 최 판관이 초봉초(初捧招)*를 받는지라. 삼 인이 애걸하여 가로되,

“우리들이 애매히 잡혀 왔사오니 덕분에 사화(私和)*하여 주시면 억만 냥 명문(明文)을 하여 드리리이다.”

최 판관이 가로되,

“지부에는 환전(換錢)길도 없고 신편(信便)도 없느니라.”

하고 염왕 앞에 나아가니 염왕이 가로되,

“지부에는 사생공사(死生公事)가 소중하니 세 놈의 호패를 떼고 거주 성명을 분명히 알아 그룹이 없게 하라.”

하고 생사치부책을 내어 연조(年條)를 상고하라 하니, 최 판관이 명을 받아 자세히 상고한즉 판결이 틀려 십 년 후에 잡아 올 사람을 지레 잡아 왔는지라. 이에 최 판관이 크게 놀라 이대로 염왕께 아뢰니 염왕이 놀라 가로되,

“세상에도 탐관오리 수재곡법(收財曲法)하는 것을 각별 살피나니 하물며 지부에서 공사(公事) 그릇하는 말이 그 어찌 되는 말이냐. 상제(上帝) 염문(廉問)이 지엄하신데 만일 이 일이 현탈(顯頤)하면 선태후결(先苔後決)*을 즉기시(卽其時)에 날 것이니 이 앞에 염려무궁하매 빨리 내어보내라.”

하거늘, 삼 인이 이 말을 듣고 대희하여 염왕 앞에 나아가 아뢰되,

“인간에 조용히 있는 사람을 지악(至惡)한 차사를 보내어 잡아들여

올 제 열나흘 길이오니 이제 돌아가라 하시니 왕환(往還)이 이십팔 일이라. 그사이 칠일장을 하였을지 구일장을 하였을지 석 달 관을 그대로 둘 리는 만무하오매 벌써 장례를 치러 시신이 없을 것이니 혼백을 어디다가 붙이라 하시니이까.”

하며, 발악이 비경(非輕)*하거늘 염왕이 들으매 언즉시아(言則是也)라*. 이에 달래어 가로되,

“그러하면 아무 재상가의 네 가문과 같은 집에 점지하여 줄 것이니 도로 나가라.”

삼 인이 다시 아뢰되,

“좋은 사람을 잡아다가 오거라 가거라 하니 응당 그 값이 있을지라. 소생 등의 원대로 점지하여 주소서.”

염왕이 웃으며 가로되,

“너희 소원대로 아뢰라.”

하니 삼 인이 아뢰되,

“소원이 수다(數多)하오니 문자로 아뢰리이다.”

하고, 일장 소지(所志)를 받들어 올리니, 하였으되,

【중략 부분의 줄거리】 첫 번째 선비는 과거의 문과에 급제하여 위엄이 천하에 진동하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두 번째 선비는 과거의 무과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준 후에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소망한다. 이에 염왕은 두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 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비의 소지를 읽어 내려간다.

‘다남자즉다구(多男子則多懼)하니 아들 형제 딸 하나에 내외손이 번성하여 각색 자미 즐겨 하니 광분양의 백자 천손인들 이에서 더할쏜가. 날마다 개경연(開瓊筵)이라. 화(和)하여 열친척지정화(悅親戚之情話)*하고 서천륜지락사(序天倫之樂事)*로다. 비우상이취월(飛羽觴而醉月)*

하니 의가지락(宜家之樂)이 족하도다. 일월성진광음중(日月星辰光陰中)에 부귀인간 유수(有數)로되, 다만 아끼노라 청천삭출(靑天削出) 빨리 간들 어이하리. 한심할사 건곤(乾坤)

[A] 이 불로월장재(不老月長在)하니 적막강산금백년(寂寞江山今百年)*이라. 어렵고 못 할 일은 장생불사(長生不死)뿐이로다. 진시황 한무제도 채약구선(採藥求仙)하여 연년익수(延年益壽)하려다가 변통무료(變通無聊)하였으니 그야 어찌 바라리오. 지분지명(知分知命)하여 병 없고 성한 몸이 명철보신(明哲保身)*하려 하면 더할 것 없사오니 수삼갑자(數三甲子) 누리다가 와석종신(臥席終身) 고종명(考終命)*이 원이오니 복걸참상교시후(伏乞參商教是後)에 복망런지궁지(伏望憐之矜之)하시며 애지홀지(愛之恤之)하사 의소원처치(依所願處置)하여 주심을 천만 축복하나이다.’

하였거늘, 염왕이 세 번째 소지를 보다 그만두며 대로하여 꾸짖어 가로되,

“이 욕심 많고 무거불측(無據不測)*한 놈아. 네 들어라. 내가 천지개벽 이후로 만물보응(萬物報應) 윤회지과(輪廻之窠)와 생사화복(生死禍福) 길흉지권(吉凶之權)을 모두 다 가지고 억만창생의 수요장단과 선악 시비를 평균히 조석으로 살리는 터에 성현 군자라도 하지 못할 일을 모두 다 달라 하니, 그 노릇을 임의로 할 양이면 내 염라대왕은 떼어 놓고 스스로 하리라.” 하더라.

- 작자 미상, 「삼사황엄황천기」

*왕조: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 왕희지와 조맹부.

*광란: 음식이 채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

*경과거리: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줄 만한 거리.

- *초봉초: 죄인을 문초하여 구두로 진술을 처음 받는 일.
- *사화: 서로 좋게 풀.
- *선택후결: 먼저 태형을 가하고 후에 죄의 유무를 논함.
- *비경: 일이 가볍지 않고 중대함.
- *언즉시아라: 말인즉 옳은지라.
- *열친척지정화: 친척 이웃들과 기쁘게 이야기를 나눔.
- *서천륜지락사: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
- *비우상이취월: 새 것 모양 술잔을 날리며 달빛에 취함.
- *적막강산금백년: 적막한 강산은 이제 백 년임.
- *명철보신: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일을 잘 처리하여 자기 몸을 보존함.
- *고종명: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이룸.
- *무거불측: 성질이 말할 수 없이 흉측함

34.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삼 인은 경치가 아름다운 봄날에 백악산에 올라 실컷 취하도록 함께 술을 마셨다.
- ② 사자들은 사람을 잡아가야 하는 소임을 다하고자 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삼 인을 지부로 데려갔다.
- ③ 최 판관은 염왕 앞에서 지부로 잡혀 온 사람들로부터 초봉초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④ 염왕은 삼 인이 지부로 오기 전부터 사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알고 있었다.
- ⑤ 삼 인은 원하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염왕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문자로 써서 아뢰었다.

35. [A]에 나타난 인생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면서도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삶의 행복이다.
- ② 예절을 익혀서 몸소 실천하고 자식들이 이를 본받는 것이 삶의 행복이다.
- ③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삶의 행복이다.
- ④ 자손이 번성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삶의 행복이다.
- ⑤ 세상의 고뇌를 잊을 수 있는 자연 속에 묻혀 학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삶의 행복이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삼사횡입황천기」는 인간이 인간계가 아닌 저승, 즉 ‘지부 세계’를 경험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부 세계는 준엄한 공간으로 사생공사의 허점이 용납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지부 세계의 존재들은 인간계에 개입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춘 인물들로 그려지기도 한다. 지부 세계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계의 관행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당당함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지부 세계에 대한 인간들의 체험기를 통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당대 인간계의 실상과 당대인들의 생사관을 엿볼 수 있다.

- ① ‘사화하여 주시면 억만 냥’을 주겠다고 애원하는 모습에서 돈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당대 인간계의 관행을 엿볼 수 있겠다.
- ② 염왕이 죽지 않은 사람을 잡아 온 것을 문제 삼으며 ‘상제 염문이 지엄하신’ 것을 강조한 것에서 허점을 용납하지 않는 지부 세계의 준엄함을 엿볼 수 있겠다.
- ③ 인간계로 돌아갈 경우에 ‘벌써 장례를 치러 시신이 없’으므로 혼백을 붙일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사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보는 생사관을 엿볼 수 있겠다.
- ④ ‘좋이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거라 가거라 하니 응당 그 값이 있을지라.’라며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서 세속적 욕망에 집착하는 인간계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겠다.
- ⑤ ‘너희 소원대로 아뢰라.’라는 염왕의 말을 통해, 지부 세계의 존재가 인간계에 개입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겠다.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무슨 무슨 주의(主義)의 옛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神木)의 향기 맡으며 ㉠ 밭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國道邊)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봄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툰니들이 갈수록 뽀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여

잎사귀 달린 시(詩)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

- 최승호,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북가시나무: 북가시나무. 참나뭇과의 상록 활엽 교목으로, 목재의 빛깔이 붉음.

(나)

가을이면 으레 생각할 수 있는 결실이라든가 수확이 주는 내적 충실성을 기리고 교훈을 받음으로써 인생의 다시없는 수양, 그 생에 임하는 자세로 삼았었다.

그러나 차츰 나는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젊었을 때

는 물론, 거의 근년까지도 봄의 새로운 약동과 여름의 성장을 가을의 조락과 겨울의 죽음보다 더 뜻있게 여기고, 그리고 기다리며, 그렇게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낙관적인 자연관과 인생관을 갖는 것이 옳고 마땅한 것으로 알아 왔다.

시들어 버리는 것, 떨어져 잎새가 그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깊고 가혹한 죽음의 계절을 떨며 움츠리며 동면하는 일들을 바로 인생 그것으로 느껴 비관주의와 부정주의—진리의 어두운 면만을 보는 것은 건전치 못한 생의 태도로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의 나는 이 두 가지 상대적인 진실, 계절이 갖는 그 자체의 철리(哲理)*를 그 자체의 진실대로 파악하여 그 두 상대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또 하나의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찾는 사색의 입지(立地)를 발견할 듯하다.

나서 자라서 시들어 죽는 것, 또다시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과 성장을 거쳐 영원한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아니 이러한 일 자체가 이미 대자연의 법칙을 똑바로 증명해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감을 갖는다.

잎이 떨어질 때 의젓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떨어지는 가을 나무의 저 멋, 그것은 아주 정신적인 것이다. 그것을 슬프게 보고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부질없는 인간의 감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깨끗하게 버릴 것을 훌훌 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의연하게 버티고 서서 더욱더 높고 깊어진 하늘의 무한을 성긴 가지로 받들어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자세는 얼마나 당당한가.

저 잎새에 부는 소슬한 바람 소리, 칠칠한 치레를 깨끗이 벗어 버리고 알몸 그대로의 의지로 **장차의 서릿발과 눈보라를 견딜 자세로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의젓함은 참말 아름답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조용히, 어디까지나 겸허하게, 어디까지나 당당하게 그 자신에게 닥치는 보다 더 큰 운명, 보다 더 위대한 섭리의 진실에 대처하고 있다. 그것이 자연에 관해서든, 인사(人事)에 관해서든 어떤 사물의 궁극적인 철리를 깨달아 파악하는 일이 인생에겐 필요하다. 그 과정의 기복(起伏)과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요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특히 조금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인간이 받은 특혜가 있다면 바로 이 스스로의 운명, 어떤 중국적인 결말을 지혜와 경험으로 미리 깨달아 안다는 사실일 것이다.

가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가을과 겨울을 진실, 조락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안다는 것이 된다. 아니 가을을 여름의 연장이나 변화로, 가을을 겨울이나 또 그다음 계절의 전제로서 아는 것은 참가을의 뜻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가을 자체가 지닌 철리, 가을 자체가 하나의 엄연한 진실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정확한 섭리를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가을은 이러한 인생적인 진실을 말해 주고 가을의 조락과 가을의 그 물들음이 가져다주는 정결하고 멋진 가을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저 잔디가 더 누렇게 타고, 불 뿜듯 타오르는 셀비어꽃이 다 떨어지고, 커다랗게 바람에 불리며 아직은 청청(靑靑)한 플라타너스 잎이 누렇게 단풍 들면 가을은 더 가깝게 나에게 육박할 것이다. 그 누런 나뭇잎이 훌훌 떨어지고, 성긴 가지만이 하늘을 가리킬 때 **나의 시야는 한층 더 넓어지고 또 투명해질** 것이다.

㉠ **밖에** 그 가지가 먼 밤하늘 찬란한 별들을 가리킬 때 생각하는 가을 나무, 나도 비로소 더 높이 별들의 풍요함을 가슴에 담으리라. 그리고 이제까지는 아직도 알지 못했던 더 깊이 감춰 있는 영원한 비밀, 그 찬란한 진리를 향해 맑디맑은 새 눈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박두진, 「가을 나무」

*철리: 아주 깊고 오묘한 이치.

3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어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작중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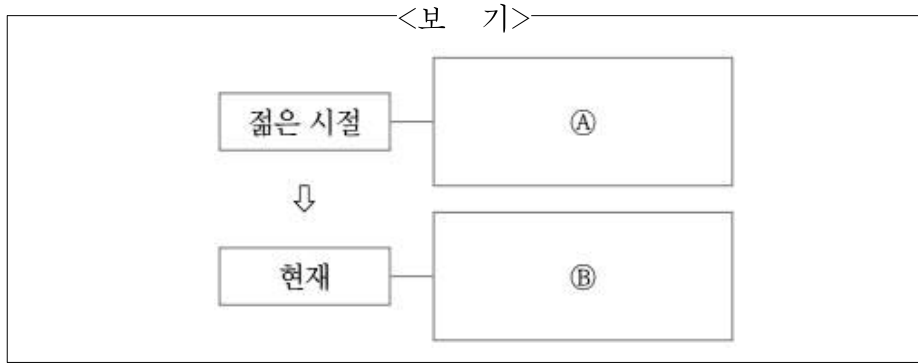
38. (가)의 시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무슨 무슨 주의의 옛장수’와 ‘가위질’, ‘흠집투성이 몸통’을 연결하여 부정적 상황 속에서 화자가 상처받은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2연: ‘허공’을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이상적인 공간에서마저도 화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3연: ‘국도변’에서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나부끼는 상황을 연결하여 화자의 영혼이 현실 공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4연: ‘봄기운’에 ‘생기’를 띠는 ‘낮’에 대응하여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는 화자의 대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5연: ‘새 한 마리 깃들여 / 지저귀지 않’는 부정적 상황에도 ‘시를’ 쓰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열거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3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거의 삶을 회고하는 시간으로, ㉡은 자연물과 동질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은 대립하던 이념과 타협하는 시간으로, ㉡은 운명의 한계를 깨닫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은 지향하는 가치를 떠올려 보는 시간으로, ㉡은 삶의 자세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은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시간으로, ㉡은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은 그리운 대상과 교감을 시도하는 시간으로, ㉡은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봄과 여름’의 약동과 성장을 ‘가을과 겨울’의 조락과 죽음보다 중시하는 자연관을 가짐.
- ② A: ‘가을’을 삶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어 제한적으로 인식함.
- ③ B: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라는 두 상대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의 통합적 사고를 경험함.
- ④ B: ‘가을’ 그 자체가 나서 자라서 시들어 죽고 다시 태어나는 대자연의 철리를 담고 있는 계절이라고 인식함.
- ⑤ B: ‘가을’의 정결함과 멋짐이 주는 인생의 진실과 ‘가을’의 결실이 주는 내적인 충실성을 삶에 임하는 자세로 삼음.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학에서 자연은 시적 화자나 글쓴이에게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 이상의 역할을 한다. 자연은 인간이 처한 현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도 하며, 그 속에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세를 암시해 주기도 한다.

최승호의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는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응시켜 양상한 나뭇가지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황폐해진 화자의 영혼도 순수하고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박두진 「가을 나무」는 가을 나무에 대한 상념을 통해 의연함과 당당함으로 운명적인 시련에 대처하는 가을 나무를 예찬하면서 가을 나무가 글쓴이에게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고 있다.

- ① (가)에서 ‘내 영혼’을 ‘북가시나무’에 빗댄 것은 자연을 인간이 처한 현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상으로 본 것이군.
- ② (가)에서 ‘잎사귀 달린’, ‘과일을 나눠 주는’ 나무의 모습을 떠올리며 화자는 자신의 황폐해진 영혼도 소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군.
- ③ (나)에서 가을 나무의 잎이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글쓴이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④ (나)에서 가을 나무가 ‘장차의 서릿발과 눈보라를 견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의젓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에서 글쓴이의 예찬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나)에서 가을 나무를 통해 ‘나의 시야는 한층 더 넓어지고 또 투명해질 것’이라는 표현에서 가을 나무가 글쓴이에게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보소 손님네야 설운 말 그만하고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 나의 말씀 들어 보소
 천지 인간 큰 기틀에 존비귀천(尊卑貴賤) 짜여 내어
 하루 한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움이 뉘 있을꼬

하늘에도 변화 있어 일월식을 하오시고
 바다에도 진퇴 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며
 춘하추동 사시절에 한서 온랭(寒暑溫冷) 돌아오니 [A]
 부귀엔들 물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공명인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쏜가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변화하다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할까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卿大夫) 높은 신분 귀공자도
 섬 고생 다 지내고 천은 입어 올라갔네
 이 고생 다 겪은 이 손님뿐이 아니로세
 그토록 설워하며 저토록 애를 썩여
 귀양살이 애쓰나니 꽤히 죽어 모르자니
 망해투사 하려는가 불식아사 하려는가
 자문이사 하려는가 음독이사 하려는가
 설운 사람 다 죽으면 조선 사람 반이 되고
 귀양 가서 다 죽으면 섬 유배객 뉘 있을까

죽음방초 우거진 데 두견 슬피 우는 곳에 [B]
 만고 영웅 문헌 산이 몇몇인 줄 모르니
 설워 죽은 무덤 없고 애써 죽은 시체 없네
 손님 얼굴 보아하니 피골상련하였으니
 종이 붙인 배롱*인가 두 눈 박은 수숫대인가
 십오 리 장승인가 열나흔날 제웅*인가
 실성한 광인인가 실혼한 병인인가
 검은 눈 회게 뜨고 복넉만 바라볼 제
 발 가운데 허수아비 새 날리는 모양이라
 부러 죽지 아니해도 병이 깊게 들었으니
 이 병 저 병 천만 병 중 그리운 상사병이 첫 번째라
 천 리 타향 혈혈한데 한술 물을 뉘 떠 주며
 화타 편작(華佗扁鵲)* 다시 산들 손님 병은 어쩔 수 없네

- 안도환, 「만언사답(萬言詞答)」

배롱: 화로(火爐)에 썩워 놓고 그 위에 젖은 기저귀나 옷을 얹어 말리도록 만든 기구.

*제웅: 짚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물건.

*화타 편작: 화타와 편작. 중국 역사에서 뛰어난 명의.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과장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역설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비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43.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연의 변화처럼 귀양살이하는 처지가 바뀔 수 있음을, [B]는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많은 사람이 견뎌 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A]는 귀양살이의 상황과 대조되는 자연의 모습을, [B]는 귀양살이의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A]는 자연이 순환되듯 귀양살이의 힘겨운 일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B]는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되는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는 자연의 굳건함을 본받음으로써 귀양살이의 고충을 견뎌 낼 수 있음을, [B]는 귀양살이의 어려움이 영웅들이 겪는 필수적 과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는 자연 완상을 통해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B]는 영웅들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귀양살이에서 오는 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44~45] 윗글과 <보기 1>, <보기 2>를 바탕으로 44번과 4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 기>—

시가 문학 중에는 특정 작품에 대한 답가 형식으로 지어진 것들이 있다. 애초의 특정 작품을 본가라고 할 때 답가는 본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상이나 상황, 정서 등을 연계하여 창작된다. 또한 본가와 답가를 지은 사람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 답가의 화자는 결국 작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보기 2>는 윗글의 본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작가는 화자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유배 생활의 어려움, 유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보 기>—

평생 일심 원하기를 충과 효를 온전히 하겠더니
한 번 일을 그릇하고 불충불효 다 되겠다
후회가 막급이라 뉘우친들 무엇 하리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
어디서 녹을 먹는 신하가 죄짓자 하라마는
대액이 앞에 도달하니 눈조차 어둡구나
마른 쇠를 등에 지고 열화에 뛰어든 것이로다
재가 된들 뉘 탓이리 살 가망 없다마는
한 목숨을 귀하게 여기셔서 섬으로 보내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중략>

상년에 배던 보리 올해 고쳐 베어 먹고
지난여름 낚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낚으니
새 보리밥 담아 놓고 가슴 막혀 못 먹으니
뛰던 고기 회를 친들 목이 메어 들어가라
설위함도 남에 없고 못 견뎌도 남과 다르니
㉠ **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십 년이라
흥즉길함 되려는가 고진감래 언제 할꼬

- 안도환, 「만언사」

44.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답가)과 <보기 2>(본가)를 엮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답가의 ‘설운 말 그만하’라는 말은, 본가의 ‘설위함도 남에 없고 못 견뎌도 남과 다르’다고 하는 말을 받는 방식으로 연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답가의 ‘공명인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쏜가’는, 본가의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에 담긴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과 연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답가의 ‘저런 고생 계속할까’는, 본가의 ‘흥즉길함 되려는가 고진감래 언제 할꼬’에 담긴 유배 생활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연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답가의 ‘손님 얼굴 보아하니 피골상련하였으니’는, 본가의 ‘새 보리밥 담아 놓고 가슴 막혀 못 먹으니’에 담긴 내적 고뇌와 연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답가의 ‘검은 눈 희게 뜨고 복녕만 바라볼 제’는, 본가의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에 담긴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과 연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

45. 윗글의 ㉠과 <보기 2>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작가가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은 작가가 타인과의 갈등을 부각하기 위해 내세운 화자이다.
- ② ㉠은 작가가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 ㉡은 작가가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기 위해 내세운 화자이다.
- ③ ㉠은 작가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은 작가가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 내세운 화자이다.
- ④ ㉠은 작가가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해, ㉡은 작가가 자신이 겪은 역경을 토로하기 위해 내세운 화자이다.
- ⑤ ㉠은 작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은 작가가 남들과 다른 자신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운 화자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